조계종복지재단, 경제취약계층 자활 통로로 '우뚝'

2012~현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 주목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꾸는 경제취약계층. 이들을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 중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저소득층 자립 구원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우리나라에서 '미소금융'으로 불리며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제도로 널리 상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고정저금리(1.8%)로 창업자금 또는 경영개선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계종복지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연간 일정금액을 할당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일을 수행한다. 보증료율은 0.5%, 상환기간은 총 5년, 대출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을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7개 업체가 약 29억689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중 81개 업체(45.8%)가 저소득층에 해당돼 눈길을 끈다. 이처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 일환으로 경영컨설팅 및 다양한 창업교육도 지원해 만족도가 높다.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남강숙 대표는 "20년간 옷장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조계종복지재단을 만나 다양한 의류를 비치할 수 있게 돼 자금운영이 원활해졌다"며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또한 동작구에서 '주영텔레콤'을 운영 중인 박상훈 대표는 "지인 소개로 조계종복지재단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알게 됐다. 사업을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매달 방문해주시는 사업장 운영 관련 상담도 세무·회계 부분서 꼼꼼히 점검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조계종복지재단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할당받은 9억1500만원 중 9억1400만원을 총 42개 업체에 대출을 지원하며 99% 지원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2012~2015년에 비해 높은 비율일 뿐 아니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이 할당액을 번번이 채우지 못하는 점에 비하면 월등한 성과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이에 대해 홍보 및 템플스테이 효과라고 자체 평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영텔레콤' 박상훈 대표(사진 왼쪽)가 사업장 운영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저금리 창업·경영개선 대출
5년간 177개 업체 30억 지원
저소득층 대출지원 45% 달해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 만족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지난해 처음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대상자들이 크게 만족했다"며 "이런 특화 프로그램과 경영컨설팅 및 창업교육 등 사후관리 서비스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인 소개를 통한 지원 신청자가 크게 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숫자로 보는 조계종복지재단 '마이크로크레딧'

- 5년간 대출지원액: 29억6890만원
- 2016년 대출지원액/할당액: 99.89%
- 총 대출 지원업체수: 177곳
- 저소득층 지원 비율: 45.8%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한 지원 내용은 크게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으로 나뉜다. 먼저 창업자금은 신규창업준비자 및 창업 6개월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투자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경영개선자금은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 서울소재 사업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자영업자(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저축 완료자 △실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자녀 2인 이상, 막내자녀만 13세 이하)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도박·사치·향락 등 사회건전문화 저해업종 △주류·담배 등 국민건강유해업종 △서울시 외 지역 △금융거래 부적격자(신용관리정보 등재,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파산, 면책, 재산 압류 및 가압류 등)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이용시 중 1개 사항이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하다.

지원 희망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초본 원본 △신분증 사본 △대상자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지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조계종복지재단 측에 제출, 추후 절차를 거쳐 우리은행으로부터 최종 대출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본지는 지난 3월 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체결한 '경제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매월 1회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관련 기사 게재를 통해 본 사업을 홍보하고, 경제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힐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 성평등 실현 목적 '성평등불교연대' 창립

전국비구니회 등 19개 단체

불교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불교연대가 창립됐다.

성평등불교연대(상임대표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는 3월 16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강당서 발족식을 열고, 불교 내 성폭력 근절 및 성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불교계 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길 바란다"며 "출재가자들의 폭넓은 지지와 활발한 활동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연대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구성됐다. 하지만 앞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 △긴급 신고 전화 운영 △피해자 구제활동 △성평등 의식 고양 교육 △이웃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성평등 캠페인 등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상담전화는 (070)7772-8050이다.

연대에는 전국비구니회, 광주불교NGO네트워크, 교단자정센터,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지, 바른불교재가모임, 본마음심리상담센터, 종교와젠더연구소, 지혜로운 여성, 한국불교상담학회 등 모두 19개 단체가 참여한다. 박아름 기자

도난 부여 무량사 금동불, 본래 자리로

문화재청·대전경찰청, 81점 회수… 불영사 불화 8점도
충남도 문화재 지정 후 도난, 조선 불교조각사 중요사료



부여 무량사 5층석탑 해체 보수 중 발견됐다가 도난된 금동불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과 공조수사해 회수한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총 81점을 원소장처로 돌려보낸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된 81점의 문화재 중에는 불교 성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사진〉이다.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1971년 무량사 오층석탑 해체보수 작업 중에 1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중 본존이다. 이 석탑에서 출토된 아미타삼존불과 관음보살(총 4구)은 충남 유형문화재 100호로 지정됐으나 1989년 7월 13일에 모두 도난당했다.

이후 3구는 문화재청이 2001년 2월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회수됐고, 나머지 불상 1구는 인천 송암미술관의 신고로 되찾게 됐다.

이번에 회수된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33.5㎝로, 고려 후기의 불상양식을 계승하여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또한 1989년 10월 23일 도난당한 경북 울진 불영사 시왕도 7점과 사자도 1점도 환수됐다. 두 폭이 한 쌍인 시왕도를 도난 후에 별개로 나누어 액자로 만들었다. 이 불화는 19세기 후반 경북·경기서 활동한 대표적 불화승인 서봉 응순, 만파 정탁이 조성한 것으로 현재 이들이 제작한 지장보살도와 관음도가 남아 있다.

이밖에도 한필원 지석 등 19점, 전북 익산 김안균 가옥(전북 민속문화재 제23호) 현판 등 7점, 이민성의 문집인 〈경정속집(敬亭續集)〉 도 원소장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조수사와 문화재 관련 도난단속을 강화, 문화재 보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비명상'으로 대중과 소통해요 현대인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명상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님들이 명상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3월 13일 동국대서 열린 자비명상 신입생 환영회 및 제3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는 50여 스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이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사진 뒷열 오른쪽 네 번째)의 '스님들이 깨어야 한다'는 선창 아래 유쾌하게 엄지를 들어 올리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차, 신사옥 건립 영향평가 공청회 연다

3월 30일, 서울 대치2문화센터

한전부지를 매입해 신사옥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가 조계종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현·원명)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3월 14일 조계종에 신사옥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오는 30일 열겠다고 전했다. 장소는 서울 대치2문화센터로 정해졌다. 이곳은 대규모 인원이 수용 가능해 현대차 측과 조계종 측에서 주요관계자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대차 측에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종단소속 환경전문가들에게 참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종단차원 공청회를 통해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싶지만 일정이 빠듯해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